

의학을 통한 독일과 일본의 만남 그리고 균열

[서평] Hoi-Eun Kim (2014), *Doctors of Empire: Medical and Cultural Encounters between Imperial Germany and Meiji Japan*, Toronto and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xiv + Map + 216 pp.

박 윤 재*

예전 원로 의사들을 인터뷰할 때 식민지 시기와 관련하여 가끔 듣던 이야기가 있다. “서울대가 연구 중심이라면, 세브란스는 임상 중심이었어.” 지금이야 연구와 임상 중 어느 한 쪽에만 치중하는 의대는 없겠지만, 당시는 달랐다는 이야기였다. 원로들은 그 차이의 연원을 학습한 의학의 고향에서 찾았다. “서울대는 독일식 의학을 받아들였고, 세브란스는 영미식 의학을 받아들였어.” 한국에 서양의학이 도입될 초창기 역사를 살펴보면, 제증원·세브란스가 영미의 선교의사들에 의해 설립된 반면, 경성의학전문학교나 경성제대에 독일유학과 일본인 의사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두 의학이 그렇게 달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곤 했다. 서양의학이면 다 같은 서양의학이지 독일의학이 따로 있고 영미식 의학이 따로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 경희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었다. 김희은 선생의 책을 받아들자마자,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배경에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

1868년과 1914년 사이 2백여 명의 일본인들이 의학을 배우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갔다. 그 반대의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12명의 독일인들이 교육을 위해 일본으로 왔다. 6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독일에 유학한 일본 의사, 일본에서 의학을 교수한 독일 의사를 교차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 고찰을 통해 근대 일본의 의료가 독일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근대 일본이 독일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1장 동상이몽(Same Bed, Different Dreams). 이 장은 왜 일본이 독일의학을 수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그 배경에는 코흐로 상징되는 독일의학이 당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의학적인 고려가 있었다. 메이지 시기의 일본 의사들은 근세 일본에 수입되었던 네덜란드의학이 독일의학의 모방이었음을 깨달았다. 나아가 그 의학조차 기초 지식이나 임상 경험이 부족한 채 전수되었음을 깨달았다. 의학적인 고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프러시아의 국가체제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있었다. 결론은 새롭게 정비된 전문적인 의학교육의 시작이었고, 그 주체는 독일 의사들이었다.

그러나 독일 의사의 내일(來日)은 일본만의 요청은 아니었다. 독일 역시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독일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이고 상업적이며 문화적인 팽창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었다. 일본의 요청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다. 당시 요코하마에 주재하던 프러시아 공사 브랜트는 독일 정부에 일반 의사가 아닌 군의(軍醫)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유는 군의들이 일본인에게 존경을 받고 귀족층에 쉽게 받아들여지며 천황의 주치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었다. 이렇게 독일의학의 일본 진출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이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로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였다.

2장 빌린 손들(Borrowed Hands). 이 장에서 저자는 메이지 일본에서 활동한 독일인 의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처음 지금의 동경의대에 해당하는 의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황당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일본 학생들이 의학책을 소리 내어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우듯이 의학을 읽으면서 외웠다. 전문적인 교육을 시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독일어 실력은 형편이 없었고, 통역 역시 기대만큼 뛰어나지 않았다. 학습기자재는 부족했고, 동료 교수들은 무능했다. 독일 의사들은 혁명을 원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권권을 요청했고, 그 권한으로 학교를 변혁했다. 수업방식을 바꿨고, 독일인 교수를 추가 임용했으며, 교육기자재를 개선했다.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입학생 수는 늘었고, 학교의 교육체계는 정비되어갔다.

일본의 적응도 빨랐다. 일본 의사들이 교수로 임용되면서 독일 의사들의 지위는 낮아졌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교수 추천 방식도 바뀌어 독일 정부와 관계도 열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 책에서 다루는 마지막 독일 의사인 벨츠에 이르면, 독일 정부와 무관하게 사적인 인연을 통해 일본에 오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던 독일의 의도는 추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약화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머물 뿐 교육문화적인 면에서는 영향력이 여전했다. 벨츠 역시 이전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계몽된 지식인으로, 문명의 전도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장 사교적인 지식인(Socialized Intellect). 이 장의 서술을 위해 저자는 장의 제목이기도 한 ‘사교적인 지식인’을 중요한 개념 장치로 이용하고 있다. 그 장치를 통해 일본 유학생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렇게 형성된 결집력을 기반으로 일본의 근대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유학이라는 공통된 경험은 일본의 근대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일본 유학생들의 독일 체류기간은 의외로 길지 않았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1년이 못되게 체류했다. 많은 나이, 부족한 돈, 자유롭게 수업을

듣는 독일 교육체계가 그 이유였다. 많은 나이는 독일 유학의 목적이 학위 취득이 아니라 보수 교육이나 실습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개방적인 독일의 교육체계가 많은 지식과 경험 획득이 필요한 일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일본 학생들이 그 조건을 충분히 향유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유학 첫 세대들은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다. 때문에 그들은 왕따를 자처했다. 독일어를 하루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경향은 점차 사라졌다. 일본에서 독일 의사에게 공부한 유학생들의 수가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본 학생들은 특정 독일인 집을 하숙처로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 곳이 일종의 아지트로 변해갔다. 짧은 체류기간도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본인 공동체를 요구했다. 일본에서 경험한 기숙사생활도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그 공동체는 학술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함께 모여 맥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시간을 죽였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소비한 것만은 아니었다. 만남을 통해 군대,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연줄을 만들기 시작했고, 사교적인 지식인이 되어갔다.

4장 현혹되고 당황한(Bedazzled and Bewildered). 이 장에서 저자는 독일에 유학한 일본 의사들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일본인들은 장의 제목처럼 독일에 현혹되면서 동시에 당황스러워 했다. 독일에 도착한 일본인들은 독일의 건축, 문화에 탄복했다. 문화 중에는 학문 이외의 것도 있었다. 독일은 성적인 일탈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소외감도 강하게 느꼈다. 일본 학생들은 독일에 도착할 때부터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인들은 동물원의 동물인양 일본인들을 보았고, 처음 천국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독일에 왔던 학생들은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 감정 뒤에는 열등감도 있었다.

그러나 저자의 장점은 그런 수동적인 일본인만을 그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본인 역시 있었다. 독일의 오리엔탈리

즘에 대항하는 일본인들이었다. 그들은 술, 아편, 전염병 등을 지목하며 유럽문명이 가지는 파괴성을 설파하였다. 유럽문명을 상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5장 청진기로 진단한 일본(Japan through the Stethoscope). 이 장에서 저자는 일본에서 활동한 독일 의사들을 그리고 있다. 독일 의사들은 일본 사람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며 자신들과 구별했다. 그들은 식물학, 동물학, 신화학, 언어학을 활용하며 인류학적인 관찰을 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물려 받은 경우 전통적인 일본에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애착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생겼다가보다는 문명적 우월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벨츠의 경우 체질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두개골과 신체를 측정하여 인종을, 즉 자신과 일본인을 구분했다. 접근법은 다소 달랐지만, 두 독일 의사가 내린 결론은 같았다. 유럽인의 우월함이었다. 이런 우월함은 과연 일본이 선진적인 유럽문명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문제는 일본 의사들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양 스승의 태도를 습득했다는 것이다. 일본 의사들도 과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일본 제국 내의 피식민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해부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다 한국인 학생들에 의해 배척된 쿠보가 바로 그 예였다.

6장 만남의 장점과 단점(Promises and Perils of Encounters). 저자는 의학을 통한 독일과 일본의 만남이 일방적인 전달과 수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었다고 말한다. 독일의학이 수용되면서 일본의 의료계는 동경제국대학 졸업생 그룹과 다른 사립 혹은 지방의대를 졸업한 그룹으로 나뉜다. 그 구분을 낳은 기원은 이미 독일에서 싹이 터 있었다. 페텐코프와 코흐 사이의 대립이었다. 일본인 제자들은 스승들의 대립을 자신의 나라에서 반복했다.

저자가 판단할 때 각기병의 원인을 세균에서 찾으려는 끈질긴, 하지만

무익한 노력은 독일의학 수용의 다른 단점이었다. 독일의학에 익숙한 의사들, 예를 들면 육군 군의들은 실제 임상 경험에 주목하는 영국의학을 비과학적이고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영국의학을 수용한 해군은 세균학 편향에서 벗어나 실험실이 아닌 실제 임상 경험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각기의 원인이 비타민 부족이라는 진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독일의학에 대한 고집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았다. 세균에서 각기의 원인을 찾으려는 불필요한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수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이 책의 장점은 여러 가지이다. 두드러진 측면은 구체성이다. 저자가 부지런한 덕분이다. 저자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분석했다. 이 책의 곳곳에서 인용되어 독일과 일본의 만남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다수의 편지는 짐작하건대 성실성의 결과로 모아졌다. 그런 성실성 덕분에 독자들은 독일로 건너간 일본인 유학생 수, 그들의 연령, 유학비용, 체류기간, 전공 과목 등 아주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저자의 성실성은 자료뿐 아니라 어학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저자는 한국인이고, 이 책의 주제는 독일과 일본의 만남이다. 위 사실은 저자가 최소한 4개 국어를 해독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 능력에 힘입어 이 책에서는 각 언어로 쓰인 다양한 자료, 논문들이 인용, 분석되고 있다. 식민지 한국에서 활동한 쿠보가 체질인류학 연구를 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한 사람당 105가지의 측정을 했고, 머리 부분에서만 32개의 측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쿠보의 독일어 박사논문을 분석한 저자 덕분이다.

평자가 한국사를 전공하는지라,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해보곤 했다. 둘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발견하는 일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인텔리 청년들은 의학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이 체계화되고 직업 전망이 밝아지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빠른 성취를 이루었

다. 이러한 급성장에 독일 의사들은 놀랐다. 그런 모습은 내게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의사들도 양반층에서 의학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초창기 졸업생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일본인 학생들이 독일에 있는 우리 학생보다 뛰어나다”는 독일 의사의 평가는 첫 졸업생을 낸 세브란스의학교 교장 에비슨의 그것과 대상만 다를 뿐 일치한다.

처음 일본에 온 물러나 호프만과 달리 다음 주자였던 슐츠는 학교운영에서 전권을 발휘할 수 없었다. 독일 의사들은 일본정부에 고용되는 피계약자로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었다. 그 약화의 모습은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처음 조선정부는 제중원 운영에 선교사의 권한을 대거 부여하였고 제중원을 일종의 합작병원으로 운영하였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결과는 선교병원으로 전환이었다. 하지만 1899년 정부 소속으로 병원을 설립할 때는 달랐다. 제중원의 경험을 기억했는지 일본 의사를 계약을 통해 고용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비슷하면서 달랐다. 일본 역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각 개항장에 설립된 일본병원에 균의를 파견하였다. 저자는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미국 페리의 침공을 운요호를 통해 재현했듯이, 일본은 자신의 경험을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았다. 만약 그랬다면, 일본은 착각을 했다. 사무라이가 존경받던 일본과 달리 조선은 유학을 배운 지식인들이 대접받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무인사회와 문인사회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일본인 의사에 대한 조선의 평가는 우호적이었다. 조선인들에게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의사였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장점이 많은 책이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메이지 시기 일본이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면에서 보인 근대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저자가 판단하는 근대는 일직선상으로 발전한 결과가 아니다. 착오와 실수가 결합된 복잡한 과정이었다. 저자는 그 과정을 보여주

기 위해 방법론으로 탈국가적 역사(transnational history), 탈식민적 연구(postcolonial research), 이중적 인물연구(double prosopography)를 거론하였다. 앞의 두 가지가 이미 역사학에서 시민권을 확대하고 있는 방법론이라면, 마지막 것은 저자의 신선한 제안이다. 저자는 기존의 역사학이 분석의 단위로 국민국가에 지나치게 집착했거나, 벗어났다 해도 단순한 비교사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기존의 탈국가적 역사가 연출, 관계, 이동에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하며, 상호성(reciprocity)에 더욱 주목하겠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자신이 제시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문화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도 변하는 독일 의사들을 그렸다. 독일 제국주의를 비판할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인 의사들도 있었다. 일본의 유학생들도 역사의 주체로 복원하였다. 여기서 유학생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도 포함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인 유학생 중 다수는, 평자의 예상과 달리, 일본에서 우수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나아가 저자는 독일과 일본의 만남이 가지는 긍정적인 결과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공정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이 책의 장점이다.

그러나 평가가 보기에 상호성은 종종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저자는 각기병 원인 파악에서 나타난 세균학적 편향을 독일의학 수용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학문이란, 무결(無缺)한 의학이란 없다. 독일 세균학도 만능은 아니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독일의학 수용으로 폐해가 생겼다고 지적하는 저자의 목소리는 수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강한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독일의학의 장점만을 서술할 경우 기존 연구가 전통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일직선상의 발전을 전제했다는 저자 자신의 비판,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과도한 해석을 했다는 생각이다.

일본인 중에 유럽문명이 가지는 파괴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

다는 서술 역시 기계적인 균형맞춤이라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각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갔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각성이 민족과 제국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였지만, 거기서 멈췄다. 물론 분석 시기를 1914년으로 한정했기에 생긴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친일협력자 중에도 서양의 파괴적인 측면, 인종주의적 편견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 윤치호가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에서 겪은 차별 경험으로 결국 같은 황인종인 일본을 존송하게 되었다. 하지만 윤치호가 느낀 실망이 민족적 각성으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나아가 저자가 무의식적이거나 일직선상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저자는 학문과 기술의 연계에 대해 직선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학이 수용되고 그 의학이 일본 사회를 근대화시켰다는 전제에 큰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과연 역사적 실체가 그랬을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해부학을 수용했다고 해서 그 이해가 치료와 연결되고, 사회변화를 추동했는지 궁금하다. 현재 한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서양해부학을 교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대생들은 졸업 후 한의학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들의 몸에는 서양의 해부학과 한의학 치료가 병존해 있는 것이다. 짐작하건대, 갈등과 고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병존이 사실이라면, 독일의학의 수용에 따른 일본의학의 근대화라는 서술은, 저자의 의도와 달리, 일직선적이고 평면적이다.

특히 저자가 전통에 주는 고려는 부족해 보인다. 일본이 독일을 통해 유럽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나 대립이 생겼을 수 있지만, 이 책에서 그런 서술은 눈에 잘 띠지 않는다. 그런 서술이 있다 해도 그 내용은 근대의 수용을 둘러싼 크지 않은 대립과 갈등이다. 사실 저자의 관심은 근대의 수용에 있다. 따라서 전통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은 당연하

다. 하지만 전통이 보다 깊이 고려될 때 근대 수용에 대한 이해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계 내에서 나타난 동경대 그룹과 기타사토 그룹의 대립에는, 저자가 지적했듯이, 동아시아의, 아니면 일본의 독특한 선후배 의식이 있었다. 동경대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기타사토는 무례한 후배였던 것이다. 일본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대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전통에 대한 적절한 배려는 따라서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저자는 이 책의 곳곳에서 평자가 글 서두에 적은 궁금함에 답을 해주었다. 벨츠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의학교육이 지나치게 이론과 과학 위주라고 비판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강조하였다. 독일의학의 이론 편중성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벨츠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르호의 세포병리학에서 코흐의 세균학에 이르는 독일의 실험실 전통이 있었다. 세균학은 일본 의사들에게 당시 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현미경을 이용한 실험, 데이터 축적을 통한 귀납적 결론이 과학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믿었다. 연구는 임상 경험에서 분리되었고, 치료로부터, 궁극적으로 환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설명은 원로 의사들의 회고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저자는 독일의학이 연구에 치중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 왜 그렇게 실험실에 주목했는지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서술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그 서술은 저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평자의 관심사일 뿐이다. 이제 다음 책을 찾을 차례이다. 저자가 독일의학을 그리고 그 의학을 수용한 일본의학을 서술하면서 그려놓은 그림을 따라가며, 나아가 저자가 책의 30% 분량에 이르게 남겨놓은 각주와 참고문헌을 뒤지며 평자가 찾을 차례이다.